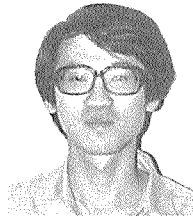


## “머릿니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용 태 순

머릿카락 사이에 슬슬 기어다니는 벌레가 있다니 생각만 해도 스물스물 하고 불유쾌한 일이다. 이러한 벌레, 즉 “머릿니”가 학동기 연령의 어린이를 중심으로 근자에 우리나라에 크게 늘어나고 있다.

머릿니는 사람이외의 동물에는 기생하지 않고 일생을 사람의 머릿카락과 두피에서 생활하는 길이 3mm 정도의 흡혈 기생 곤충이다. 머릿니의 암컷 성충은 매일 7~10개씩 산란하고 일생동안 약 200~300개의 알을 낳는다.

알은 머릿카락에 단단히 부착되어 있으며, 일 주일이면 부화되고 또다시 일주일이 지나면 성충, 즉 어른 벌레가 된다.

머릿니는 거의 2시간 간격으로 계속 피를 빨아 먹으므로, 이에 감염되면 우선 가려움증이 생기고, 긁은 부위에 상처가 생기면

이곳을 통하여 2차적으로 세균 감염이 되어 농피증이 발생되기도 한다. 또한 머릿니는 발진티푸스, 참호열, 재귀열 등의 전염병을 매개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의학적으로 중요시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머릿니 감염에 대한 조사가 근래에 이르기까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확실한 실태를 알 수는 없으나, 1950년대 6.25 전쟁 직후까지는 머릿니 감염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1950년대부터는 DDT가 개발되어 살충제를 머릿니의 구제에 사용하게 되었고, 그후 사회·경제적인 여건이 차차 좋아지면서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보건의료상 머릿니 감염은 거의 문제시 되지 않을 정도로 감염률이 저하된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에 대도시 및 농촌 지역에 머릿니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감염되어 있다는 보고들이 기생충학회, 소아과학회 등에 잇달아 조사 발표 되었다.

최근 1988년부터 1989년 사이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기생충학교실 및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기생충학교실 등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조사되어 대한기생충학회지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유치원, 국민학교 또는 중학교에 재학중인 어린이 총 11,865명 중 2,900명이 머릿니에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평균 감염율은 24.4%에 달했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지역에 따라 달랐지만 약 50% 이상 95%까지의 높은 감염율을 보였으며, 서울을 비롯한 도시지역도 10% 이상으로 나타났다.

보다 상세히 머릿니 감염의 역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국민학교 3~6학년 학생들의

감염율이 그 연령 전이나 이후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양상은 어린이들이 학교에 다니게 되면서부터 집단 생활을 하게되어 머릿니 감염의 기회가 차차 늘어나는 데서 연유되는 것으로 일단 생각 된다.

한편, 중학교 연령 이후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조사결과 여학생의 감염율이 남학생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는데, 혹자는 여자의 머리카락 길이가 남자보다 길기 때문에 여자의 감염율이 더 높다고 하지만, 이는 확실한 설명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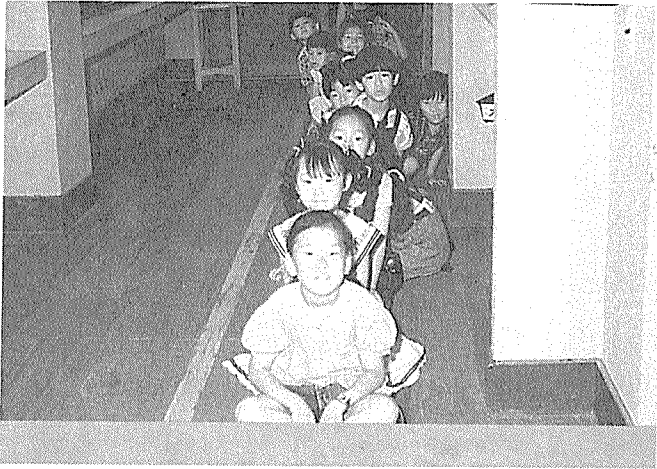
머릿니 감염은 감염자와의 접촉, 개인의 위생도, 생활의 밀집된 정도, 부모의 교육수준, 가정의 경제수준 등 여러가지 요인의 상호 작용으로 결정된다.

농촌 어린이의 경우 도시 어린이에 비해 감염율이 월등히 높고, 유치원 연령에서도



◀ 머릿니 총란(서개)  
(×80배)  
머릿니에 감염되면  
가려움증이 생기고  
굵은 부위에 상처가  
생기면 이곳으로  
2차 세균감염이  
되어 농피증이  
발생되기도 한다.

현재 머릿니 감염은  
학동기 연령의  
어린이를 위시하여  
거의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이미 높은 감염율을 보였는데 이것은 농촌의 생활 여건이 도시에 비해 열악하며, 농촌 어린이가 더욱 어린 나이부터 머릿니에 감염되기 쉬운 제반 상황에 노출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밀집된 생활을 하는 경우 재감염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보육원이나 정신병원등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에서는 일반 인구에 비해 머릿니의 높은 감염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밀집된 단체 생활이 머릿니 유행에 중요한 환경 요소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여하간 현재 머릿니 감염이 학동기 연령의 어린이를 위시하여 거의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으며, 그 감염의 정도도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머릿니 구제를 위하여서는 우선 주 감염 연령층인 국민학생에게 집단 화학요법을 시행하여 감염수준을 낮춘 다음, 재감염 방지책을 포함한 보건 교육을 실시하

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개인 위생이나 집단 위생의 개선은 머릿니 감염 방지에 중요한 요소임이 틀림없는데, 머릿니는 매우 환경변화에 약하므로 자주 머리를 감는 등 청결한 생활을 하면 우연히 한 두차례 소수의 감염이 되는 것은 방지될 수도 있다고 여겨진다.

한편, 현재 이를 위한 구제책으로 적절한 치료 약제를 손가까이에서 구하기 어려운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과거에 사용하던 DDT 등의 살충제가 환경 공해문제 때문에 법으로 사용 금지되어 있고, 이를 대체해 머릿니의 구제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약제가 우리나라에는 없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빠른 시간내에 적절한 약제의 수입 내지는 국내 생산이 이루어져 약국 등을 통하여 간단히 구입, 사용할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연세의대 기생충학 교실〉